

교사 위탁채용 거부 사립학교 보조금 중단

광주교육청 내년부터
신규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광주 사립학교 법인 6곳
공동전형 교사 선발 나서
전교조, 공동채용 제재 요구

여고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6개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위탁 채용 방침과는 별도로 공동전형 절차를 마련해 자체 출제한 지필 고사 등을 통해 신규 교사를 선발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채용과 관련 올해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불응한 6개 사립학교 법인이 별도의 공동전형으로 신규 교사를 선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법인에 대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사학법인들의 교사 채용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한 위탁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비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 지역의 경우 2018학년도 6개 법인이 15명, 2019학년도 6개 법인이 19명, 2020학년도 16개 법인이 67명을 채용했던 것에 비해 참여법인과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광주지역 전체 35개 사학법인 중 77%인 27개 법인이 참여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 사전유출과 최상위권 학생 특별 관리 등으로 비리 사학의 오명을 이어가던 광주 사립학교 법인 대표 중 몇몇이 모여 그 법인들만 별도로 교사를 뽑겠다고 나섰다"며 "생선가게를 털어 먹었던 고양이들이 다시 생선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속 빛난 수업나눔

전남교육청 20개 교과연구회
배움나눔학교 등 온·오프 수업



수해민에 전달할 후원물품 25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구청직원들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후원한 1600만원 상당의 이불과 베개 카펫 등이 담긴 물품세트를 침수피해 수해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동행정 복지센터 차량에 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등교과교육연구회, 수업선도교사, 배움나눔중점학교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수업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전남대 이옥란 교수팀, 종자발아속도 높이는 유전자 기능 규명

이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5년간 평균인 융합수(영향력지수) 7.520인 식물과학 연구 분야 상위 4.27%의 국제 학술저널인 '식물생리학(Plant Physi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중견연구과제) 및 농촌진흥청 신육종기술실용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 연구 제1저자인 장진훈 박사과정생은 전남대 학문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등교과교육연구회, 수업선도교사, 배움나눔중점학교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수업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종자의 발아속도와 바이러스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군의 기능을 밝혀내 주목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중견연구과제) 및 농촌진흥청 신육종기술실용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 연구 제1저자인 장진훈 박사과정생은 전남대 학문

후속세대 양성 장학사업 및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애들아 올 추석에는 영상으로 얼굴보자”

광주 동구 지산1동
영상 찍어 자녀들에 보내주기

라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9일까지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자녀의 휴대전화로 전송한다.

광주시 동구가 비대면 추석을 위해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 영상을 찍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활영에 나선 어르신들은 “이렇게라도 얼굴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등 반응이 좋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광주 북구 추석연휴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광주시 북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안전한 명절나기 대책을 마련했다.

악국을 지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한다.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은 오는 30일과 10월 3일 2회에 걸쳐 수거한다.

교사가 반장에게 ‘기말시험 문제’ 유출

완도 모 고교 교사...성희롱 의혹도
전남교육청 징계 착수...경찰 수사

감사를 받았다.
감사에서 A교사는 “B양이 영어 영문과를 지망하고자 해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영어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사실상 시험 문제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사가 해당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관계자는 “B양의 영어성적은 1학년 1학기 1등급, 1학년 2학기 2등급, 2학년 1학기 2등급, 2학년 2학기 1등급, 3학년 중간고사 100점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B교사는 시험 근거 등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전목마 인생
이기원 수필집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서점 판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흥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